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연구 - 기독교대학생 중심으로 -

황 인 숙* 오 윤 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진로발달 형성 과정을 구명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검증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기독교대학생 526명 대상으로 질문지법이 사용되어 조사·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정규성 검정, 빈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회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적 성숙은 사회적 지지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적 성숙은 자아탄력성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부분적인 순차적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미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 학교, 교회는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영성 훈련의 기반 아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중심단어: 진로미래, 영적 성숙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기독교대학생

• 논문 투고일: 2015년 4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15년 5월 6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5월 12일

* 한국성서대학교

** 한국성서대학교

www.kci.go.kr

I. 여는 글

현대사회의 최대 고민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답은 하나이다. 바로 진로에 대한 불안이다. 청소년은 진학에 대한 불안을, 청년은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을, 장년은 다니는 직장과의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을, 은퇴자들은 재취업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직업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¹⁾ 하지만 우리나라 2014년 3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3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2004년 45.1%를 정점으로 최근 10년간 계속적으로 하락해온 수치로, 현재 청년 10명 가운데 직업을 가진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 이처럼 청년층의 실업률은 날로 증가하며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율은 2005년 이후 꾸준히 80%를 웃돌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사에 유례없는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벌주의 및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중·고교시절 자신 및 직업 세계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³⁾ 이러한 진로 결정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맞물리면서 최근 대학에서는 뚜렷한 대안없이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⁴⁾

이는 기독교 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기독교

1) 오윤선, 『힐링과 행복코칭』 (서울: 예영 B&P, 2014), 41.

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4년 3월 보도자료.

3)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0), 387-389.

4) J. K. Tak,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012): 712-715.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기독교 대학들과 교회지도자들의 대책이 요구된다.⁵⁾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현장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입각한 진로의식과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⁶⁾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합리적인 진로의식 함양과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직업 준비를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독교 대학생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여 미래 진로 및 직장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달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 발달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영적-사회적-심리적 발달과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독교 진로상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이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소명의식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⁷⁾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로상담 모델연구가 문헌연구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일 정도로 미비하게 이루어졌다.⁸⁾ 그러나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성숙이나 소명의식 등의 단일적 변인만으로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변인들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적 성숙이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을 매개로 진로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

5) 오윤선, “기독교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119.

6) 오수진,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2011), 3.

7) 황유진,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성에 관한 성격적 상담”(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2009), 3.

8)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연구”(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12), 3.

다는 가정을 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요인을 매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모형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발달 형성과정을 구명하고, 진로지도 및 상담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독교인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영적 요인인 신앙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심리적 발달의 중요성을 구명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는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영적 성숙도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영적 성숙의 개념적 이해

영적 성숙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⁹⁾ J. Oswald Sanders는 영적 성숙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내적 자질인 동시에 타자중심적인(other-centered) 삶이라고 보았고,¹⁰⁾ John Carter는 영

9)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4), 49.

10)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2003), 35.

적 성숙의 단계를 일곱 단계로 나누어 성경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¹¹⁾ 그리고 C. W. Ellison는 영적 성숙은 전인적(holistic)인 인간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이라고 하였다.¹²⁾ 이처럼 영적 성숙에 대해 정의한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영적 성숙이란 첫째, 한 개인이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과정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및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적 성숙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영적 성숙은 신앙, 사고, 정서, 행동의 전인격이 균형을 이루며 발달한다. 넷째, 영적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적 성숙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엡4:13; 골3:10; 히5:11-14; 딤후4:7)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영적 성숙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영적 성숙의 시작과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영적이라는 말은 신비스럽고 초자연스러운 기운이 주는 품성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새 시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옛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예수의 주되심을 언제 어디서나 실현하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두 번째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자라는 것이다. 이는 성숙이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가심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

11) J. D. Carter, "Maturity: Psychological and Biblica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1974): 90.

12) C. W. Ellison, *Spiritual Maturity Index* (Nyack, NY.: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1983), 330-340.

13) 오윤선, 『힐링과 행복코칭』, 176.

람의 결과는 심리적으로도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기(true selves)를 발견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내어지게 된다.

2) 영적 성숙에 대한 선행연구

영적 성숙에 관련 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순심은 신앙성숙도와 정신건강 관계연구가 실시하였는데, 신앙성숙도가 높은 기독교 대학생일수록 정신 병리의 증상이 적게 나타났다.¹⁴⁾ 그리고 진로와 관련한 유병길의 연구에서는 신앙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으며,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회봉사, 더불어 사는 삶, 발전성의 직업가치관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¹⁵⁾ 문은숙의 연구에서도 영성 차원이 탄력성 수준을 높게 하여 진로성숙도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¹⁶⁾ 황아름은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 성숙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신앙 성숙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나 직업계획에 있어서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 신앙성숙도가 진로결정이 부분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¹⁷⁾. 그 뿐만 아니라 오수진은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수준과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신앙성숙도의 모든 하위변인이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 측면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¹⁸⁾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일 차원적 접근으로 신앙성숙도 및 소명의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직업가치관이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14) 박순심,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2002), 38.

15) 유병길, “청소년의 기독교신앙성숙도가 자아탄력성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8), 45-47.

16) 문은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10), 47.

17) 황아름,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성숙 및 진로결정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11), 51-53.

18) 오수진,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25-34.

영향력 등을 연구하는 경우였다. 이러한 단일 차원적 접근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이나 진로발달과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양한 변인들의 직·간접적 효과와 진로발달과정 구현을 위한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J. Cassel, S. Cobb, G. Caplan과 M. Killilea¹⁹⁾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가족, 친구, 이웃, 기타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 한편,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사회적 지지를 사용한 N. E. Betz는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고,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사회적 지지를 진로장벽과 함께 진로목표의 설정 및 목표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contextual factors)의 하나로서 진로선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⁰⁾ 그리고 R. W. Lent 등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혹은 가족의 영향(선택한 진로에 대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경제적 지지(선택한 진로를 추구하는데 대한 가족들의 충분한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지(친구나 가족들의 구체적인 도움), 역할모형 혹은 멘토의 지지(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19) J. Cassel,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2(1976): 104.

20) N. E. Betz,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989): 136-144.

있는 멘토에의 접근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¹⁾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모세와 이드로, 바울과 루디아,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열 두 제자 등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경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전4:10)”라고 말하며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전4:9-12). 나아가 영적·정신적·육체적 지지가 필요한 자들에 대해 서로 보완하고 협동하며 동역할 것을 강조한다(롬14:1-3; 마12:20-21; 요15:12).

2)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목표와 목표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Lent 등은 공학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목표가 학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만족 변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결과기대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경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국내에서는 양난미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선택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목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그리고 고태용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

21) R. W. Lent,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2001): 474-483.

22) R. W. Lent, Daniel Singley, Hung-Bin Sheu, Janet A. Schmidt, & Linda C. Schmidt, “Relation of Social-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007): 87-97.

23) 양난미,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6), 54-55.

게 나타났다.²⁴⁾ 이와 비슷하게 우수복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았으며, 진로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²⁵⁾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들의 진로목표 추구 활동수준, 직업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의 진로 계획, 탐색 및 결정 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 변인임을 알게 해준다. 동시에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목표 추구활동수준, 직업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공인타당도가 검증된 진로미래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동시에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탄력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자아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영어 표기는 'resilience'로 'to jump back'의 뜻을 가진 라틴어 'resiliere'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물체의 신축적이며 유연한 성질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로 “어려운 상황이나 질병으로부터 신속하고 강인하게 하는 능력”, “건강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질병, 변화, 불행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는 능력” 등으로 정의된다.²⁶⁾ 정신분석학적 조망에서 탄력성을 정의한 J. H. Block은 에고(ego)라는 접

24) 고태용,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대학원, 2008), 83.

25) 우수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대학원, 2013), 70.

26) 박미혜, “영재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대학원, 2014), 35.

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라 이름 붙였다. 그는 좁은 의미의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차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위기 위험요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유형이라고 정의했다.²⁷⁾

강연정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아탄력성을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길러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회복력, 유연성, 적응력 또는 탄력성’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 책임감, 배려와 이타적인 돌봄, 용서와 화해 등을 실천할 때 증진된다고 하였다.²⁸⁾

성경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고후 4:8-9) 이유를 말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회복하는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2)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이영아²⁹⁾의 선행연구를 보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우울과 불안수준은 낮은 결과를

27) J. Block &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no. 2(1996): 349-361.

28) 강연정,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53-57.

29) 이영아, “여성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여성」 제16권 4호(2011): 40-74.

보였다. 학업과 관련한 박서연, 정영숙³⁰⁾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업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였고, 여학생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진로와 관련해서 연구를 시도한 심지연에 의하면,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의식성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 건강 수준을 조절하는 변인이며 동시에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개변인이 된다. 또한 진로와 관련해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진로의식성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절 및 매개 변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진로미래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동시에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진로미래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진로미래에 대한 개념

진로미래는 직업세계에 잘 적응할 것이며, 미래 진로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포함하고 있다.³²⁾ 진로미래는 진로 낙관성과 진로 적응성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진로와 관련하여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

30) 박서연 · 정영숙,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3권 1호(2010): 17-32.

31) 심지연,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3), 90.

32) P. J. Rottinghaus, S. X. Day & F. H. Borgen, “The Career Future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no. 1(2005): 3-24.

적 기대감을 높여 진로 발달 형성과정에 있어 실제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³³⁾ 또한 진로낙관성은 진로 장벽에 부딪혔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로 진로 수행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나아가 실패의 상황에서 원인을 밝히고 무기력한 상태를 잘 극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로 계획, 탐색, 결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성경적 의미에서 진로미래의 낙관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에서 비롯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진로 미래에서 낙관성에 대한 히브리자의 표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11:8-10)”라고 말한다. 즉 이는 자신의 진로 미래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낙관성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로미래에 있어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므로 불확실한 사회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소망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 진로미래에 대한 선행연구

R. D. Duffy의 선행연구를 보면, 자존감이 진로미래의 구성요인인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⁴⁾ 우영지와 이기학의 연구에서는 진로포부가 진로미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그리고 문승태와 박미하³⁶⁾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

33) 김봉환·최옥현,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 Inventory (CFI)의 타당성 연구”,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7권3호(2006): 822.

34) R. D. Duffy, “Sense of Control and Carr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no. 4(2010): 420-430.

35) 우영지·이기학,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4호(2010): 547-559.

36) 문승태·박미하,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6권 3호(2013): 199-200.

로준비행동에 있어서 낙관성이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미래는 진로포부, 학업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결과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개인의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를 직·간접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경로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대상 및 조사도구의 구성과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방 주요 도시의 8개 기독교 대학과 8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이 사용되어 조사·분석되었다. 총 555명을 표집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명을 제외한 526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영적 성숙도 측정은 Ellison(1983)이 개발한 영적 성숙 척도(Ellison's Spiritual Maturity Index: SMI)에서 채점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측정은 Lent 등(2001)이 개발한 '맥락적지지·장벽 척도(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36문항에서 이정애(2009)가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측정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유성경(2002)이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미래 측정은 Rottinghaus, Day와 Borgen(2005)이 개발한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 Inventory: CFI)척도를 최옥현과 김봉환(2006)이 변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에 필요한 모든 개념은 Likert 5점 척도로서 1점(전혀 아니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안정성과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은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문항으로 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각의 측정도구의 변인 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계수는 <표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구 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영적 성숙도	단일척도	30	I- 1~30 (*10, 12, 14, 15, 18, 29)	.903
	전체 문항	13	II- 1~13	.877
사회적 지지	멘토의 지지	4	II- 1, 4, 7, 12	.695
	가족지지	4	II- 3, 6, 9, 11	.818
	도구적 조력	2	II- 5, 10	.734
	경제적 지원	3	II-2, 8, 13	.680
	전체 문항	20	III-1~20	.873
진로미래		19	III-1~18, 20 (19 제거)	.875
	진로낙관성	11	III-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31
	진로적응성	6	III- 1, 2, 3, 4, 5, 6	.862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	2	III- 18, 20 (19 제거)	.709
	전체 문항	11	III-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75
자아탄력성	단일척도	14	IV- 1~14	.829
일반적 사항		13	VI-1~13	
총 계		115		

*()는 역채점 문항임

2) 자료분석 기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규성 검정, 빈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단순 회귀분석 및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관측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측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해 수집된 자료의 일변량 정규 분포성을 확인한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영적 성숙도와 자아탄력성 척도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구성하여 측정변인을 생성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다변량 회귀 분석 및 단순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을 실시했다. 통계의 유의수준 .05이하의 양측 검정을 적용하였다.

6.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1) 관측변인의 정규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본연구의 관측변인들은 왜도 최소 -.04에서 최대 -.61, 첨도 최소 .00에서 최대 .97의 범위 내에 있어, 각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38.535(df=38, p=.00)$, TLI=.957 CFI=.970, RMSEA=.071로 연구가설에 사용한 이론적 모형이 측정 자

료를 잘 설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집중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과 그 유의성 그리고 AVE를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은 .556에서 .930의 범위에 있었으며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AVE 역시 .529에서 .799의 범위에 있어 모형내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자유모형과 제약모형간의 $\Delta\chi^2$ 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제약 모형의 χ^2 값은 281.986 자유도는 39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인 자유모형의 χ^2 값은 138.535 자유도는 38로 두 모형 간 $\Delta\chi^2$ 값은 143.451이다. 이 수치는 통계적 검증역인 3.84를 크게 상회하므로 연구모형에 대한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법칙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 간의 모든 상관의 정적 방향으로 나타나 연구의 가설과 방향성이 일치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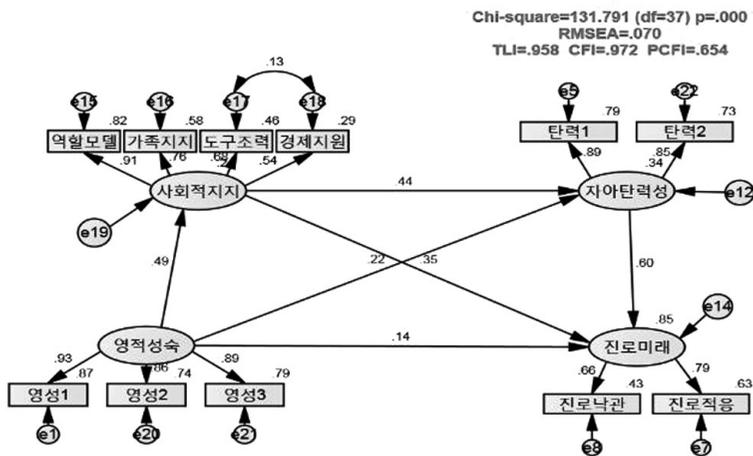
3)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결과 모든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와 연구모형에 대한 각 경쟁 모형의 $\Delta\chi^2 / \Delta df$ 를(표 2)에 제시했다. 간명성을 고려한 상태의 적합 지수를 고려하였을 때 PCFI가 제일 작은 수치를 보이는 연구모형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하여, 연결에 이론적 문제가 없는 e17 ↔ e18을 연결하여 <그림 1>과 같이 최종모형을 구성했다.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 들은 $\chi^2 = 131.791$ (df=37, $p < .001$), RMSEA=.070, TLI=.958, CFI=.972, PCFI=.654이었다.

〈표 2〉 모형과 적합도 지수(N=526)

	χ^2	df	$\Delta\chi^2/\Delta df$	RMSEA	TLI	CFI	PCFI
연구모형	138,535	38		.071	.957	.970	.670
경쟁모형 1	183,195	39	44,660/1	.084	.940	.957	.679
경쟁모형 2	198,730	40	60,195/2	.087	.935	.953	.693
경쟁모형 3	68,042	41	95,666/3	.095	.923	.943	.703

※ 모든 경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매개 최종모형

4) 매개효과 검증

먼저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부분매개 모형에 대한 모든 직접경로 검증 결과가 유의했다. 이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경로인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이 관여하기 전의 상관계수 .57에 비해 강도는 매우 약해졌지만 유의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p=.009$). 따라서 영적 성숙도, 사

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가 부분매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총 세 개의 매개경로 모두 간접경로의 유의성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모든 매개경로가 유의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영적 성숙도에서 진로 미래까지의 직접경로와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하였고, 순차적 매개경로 역시 좋은 회귀계수($\beta=.430$, $p=.002$)를 보이며 유의했으므로 본 연구의 최종가설 ‘기독교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3>에는 순차적 매개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SMC를 제시했다. 영적 성숙도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인 부분 매개 모형을 통해 진로미래 결과의 85.2%를 설명할 수 있다.

<표 3> 순차적 부분매개 모형의 효과분해와 SMC(N=526)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MC
영적성숙 → 사회적지지 → 자아탄력 → 진로미래	.140	.430	.569	.852

** $p<.01$, *** $p<.001$; B=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7. 결과 및 논의

1)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력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을 실시한 결과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첫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영적 성숙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1, 524)=108.363, p<.001$),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10.41, p<.001$).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았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지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자아탄력성에 대한 영적 성숙도의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1, 524)=91.378, p<.001$), 영적 성숙도가 자아탄력성의 증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9.559, p<.001$).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았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및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며, 지속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추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진로미래에 대한 영적 성숙도의 회귀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1, 524)=91.378, p<.001$),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11.899, p<.001$).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래 수준이 높았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 수준은 진로적응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진로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과 회귀 검증

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경쟁모델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간접경로, 즉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 결과 영적 성숙은 사회적 지지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해 보면 $\chi^2=88.308(df=24, p<.001)$, RMSEA=.071, TLI=.962, CFI=.975, PCFI=.65이었고,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117.242(df=25, p<.001)$, RMSEA=.084, TLI=.948, CFI=.964, PCFI=.67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χ^2 비교를 실시한 결과 $\Delta\chi^2/\Delta df=28.934/1$ 로 임계치 3.84를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χ^2 값이 더 작은 연구모형인 연구모형을 채택했다. 그리고 모형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에 근거해 경로(e17 ↔ e18)를 추가하여 최종모형이 구성되었다.

둘째, 두 번째 가설의 최종모형인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1이하에서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영적 성숙도에서 진로미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243으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기 전의 상관계수 .570에 비해 강도가 약해졌으나 여전히 유의함으로써 ($p=.002$) 부분매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적 성숙도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경로($\beta=.487, p<.01$)와 사회적 지지에서 진로미래의 경로($\beta=.274, p<.01$) 역시 유의했다. 나아가 영적 성숙도에서 진로미래까지의 간접경로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beta=.312, p=.006$)는 유의했다. 진로미래에 대한 영적 성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은 65.6%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직접적으로 주는 효과보다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더 크게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낙관성 및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 교수, 교역자 등 객관적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영적 성숙도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영적 성숙도가 자아탄력성을 거쳐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 즉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 결과 영적 성숙은 자아탄력성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해 보면 $\chi^2=41.181(df=11, p<.001)$, $RMSEA=.072$, $TLI=.975$, $CFI=.987$, $PCFI=.517$ 였고,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68.042(df=12, p<.001)$, $RMSEA=.094$, $TLI=.975$, $CFI=.975$, $PCFI=.557$ 로 두 모형 모두 유의한 적합도를 보였으나 χ^2 비교를 실시한 결과 $\Delta\chi^2 / \Delta df = 28.934/1$ 로 임계치 3.84를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χ^2 값이 더 작은 연구모형이 최종모형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세 번째 가설의 최종모형인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1이하에서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영적 성숙도에서 진로미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232으로,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이 투입되기 전의 상관계수 .570에 비해 강도가 약해졌으나 여전히 유의함으로써 ($p=.002$) 부분매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적 성숙도

에서 자아탄력성으로의 경로($\beta=.433, p<.01$)와 자아탄력성에서 진로미래의 경로($\beta=.743, p<.01$) 역시 유의했다. 나아가 영적 성숙도에서 진로미래까지의 간접경로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의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beta=.312, p=.006$)는 유의했으며, 이 때 진로미래에 대한 영적 성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설명력은 75.5%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직접적으로 주는 효과보다 자아탄력성으로 인하여 더 크게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에 진로 상담의 주안점을 둔다면 불확실한 진로 미래에 있어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있게 반응하도록 하고, 적절한 자아통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진로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모든 직접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매개 경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 결과 영적 성숙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첫째,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1이하에서 유의했다.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 경로인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투입하기 전의 상관계수 .570에 비해 강도는 매우 약해졌지만 유의한 상

태로 남아 있었다($p=.009$). 따라서, 영적 성숙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가 부분매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138.535(df=38, p<.001)$, RMSEA=.071, TLI=.957, CFI=.970, PCFI=.670이었고, 경쟁모형1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183.195(df=39, p<.001)$, RMSEA=.084, TLI=.940, CFI=.957, PCFI=.679, 경쟁모형2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198.730(df=40, p<.001)$, RMSEA=.087, TLI=.935, CFI=.953, PCFI=.693, 경쟁모형3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234.301(df=41, p<.001)$, RMSEA=.095, TLI=.923, CFI=.943, PCFI=.703이었다. 이와 같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적합도를 보였으나, χ^2 비교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χ^2 값이 유의하게 제일 작은 모형인 연구모형을 채택했다. 그리고 모형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하여, 연결에 이론적 문제가 없는 e17 ↔ e18을 연결하여 최종모형을 구성했다.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들은 $\chi^2=131.791(df=37, p<.001)$, RMSEA=.070, TLI=.958, CFI=.972, PCFI=.654이었다.

셋째,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차례로 거쳐 진로미래로 가는 매개경로에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chi^2=.430, p=.002$)가 유의했다. 진로미래에 대한 영적 성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설명력은 85.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써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경쟁모델 검증을 통해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차례로 투입하였을 때 영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증가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의 영

적 성숙도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가정, 학교, 교회가 객관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고안한 통합적 접근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검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영적 성숙도가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진로미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둘째, 영적 성숙은 사회적 지지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셋째, 영적 성숙은 자아탄력성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넷째, 영적 성숙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부분적인 순차적 매개를 통해 진로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정, 학교, 교회는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영성 훈련의 기반 아래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체들의 고민임을 자각할 수 있으며, 취업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좌절감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경직되지 않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기조절을 통해 역동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진로 고민 및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전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발달 형성과정을 구명하고, 변인의 적용범위를 영적 변인인 영적 성숙도에서 사회적·내적 변인을 거쳐 진로행동변인인 진로미래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국내에서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은 진로미래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 사회에서 진로미래라는 변인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기초적인 선행연구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기독교 대학 및 교회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의 특정 학년이나 특정 계열의 독특한 진로형성 발달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간 구조 모형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 및 진로 발달의 다양한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관한 후속 연구가 실시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 강연정. “교회 위기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독교 교육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 (2012): 43-76.
- 고태용.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대학원, 2008.
-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0.
-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2003.
- 김미경.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위한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7권 (2011): 73-100.
- 김봉환 · 최옥현.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 Career Future Inventory(CFI)의 타당성 연구”.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7권 3호 (2006): 821-833.
- 문승태 · 박미하.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6권 3호 (2013): 185-204.
- 박미혜. “영재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대학원, 2014.
- 박서연 · 정영숙.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3권 1호 (2010): 17-32.
- 박순심.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2002.
-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12.
- 심지연.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3.
- 양난미.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2006.
-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4.

- 오수진.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2011.
- 오윤선. 『청소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예영 B&P, 2008.
- 오윤선. “기독교 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 (2009): 118-136.
- 오윤선. “기독교 청소년 사역자의 소명의식과 자아탄력성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1권 (2013): 189-220.
- 오윤선. 『힐링과 행복코칭』. 서울: 예영 B&P, 2014.
- 우영지 · 이기학.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4호(2010): 547-559.
- 유병길. “청소년의 기독교신앙성숙도가 자아탄력성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2008.
- 유수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대학원, 2013.
- 이영아. “여성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6권 4호(2011): 517-530.
- 이정선 · 양지웅. “사회적 지지, 자존감, 진로포구, 진로미래 간의 모형 검증: P 대학교 이공계 신입생을 중심으로”.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제26권 3호(2013): 143-164.
- 장휘숙. 『전생애 발달심리학』. 제5판. 서울: 박영사, 2013.
- 한미라.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황아름. “기독교청소년의 신앙성숙 및 진로결정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11.
- Betz, N. E.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989): 136-144.
- Block, J. H. &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Ed. W. A. Collins(Hillsdale, NJ.: Erlbaum, 1980): 39-101.

- Block, J. &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no. 2(1996): 349-361.
- Caplan, G. & M. Killilea. *Support Systems and Mutual Help*. New York: Grune and Stratton, 1976.
- Carter, J. D. "Maturity: Psychological and Biblica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 no2(1974): 89-96.
- Cassel, J.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 no. 2(1976): 107-123.
- Cobb, S.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no. 5(1976): 300-314.
- Duffy, R. D. "Sense of Control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no. 4(2010): 420-430.
- Ellison, C. W. *Spiritual Maturity Index*. Nyack, NY.: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1983.
- Lent, R. W., S. D. Brown, A. Brenner, S. B. Chopra, T. Davis, R. Talleyrand, & V. Suthakaran.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2001): 474-483.
- Lent, R. W., Daniel Singley, Hung-Bin Sheu, Janet A. Schmidt, & Linda C. Schmidt. "Relation of Social-Cognitive Factors to Academic Satisfaction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007): 87-97.
- May, Gerald G. *Care of Mind Care of Spirit*.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92.
- Rottinghaus, P. J., S. X. Day & F. H. Borgen. "The Career Future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no. 1(2005): 3-24.
- Savickas, M. L. "New Questions for Vocational Psycholog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 no. 3(2011): 251-258.
- Schaeffer, Francis A. *A Christian View of Spirituality*. 2nd ed. 박문재 역. 『기

독교 영성관 - 프란시스 웨퍼 전집 3』,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

Tak, J. K. "Career Adapt-Abilities Scale-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012): 712-715.

【 Abstract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Spiritual
Maturity and Career Future
– Focusing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In-Sook Hwang & Yoon-Sun Oh

Korean Bible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verify the effect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spiritual maturity on career future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In order achieve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526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Collected data verified a hypothesis through normality test,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e equ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spiritual maturity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career future. Second, it is revealed that spiritual maturity had influence on career future, which was partially mediated by social support. Third, it is found that spiritual maturity exercised influence on career future, which was partially mediated by ego-resilience. Lastly, spiritual maturity wielded influence on career future, which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it suggests that integrated career guidance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improve career future level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career future, spiritual maturity,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